

# ‘앗! 뜨거’... 달아오른 KIA 스토브 리그



## 소크라테스 재계약

외국인 선수 구성과 FA 계약이라는 큰 숙제를 안은 KIA 타이거즈의 스토브리그가 분주하게 흘러가고 있다.

‘5강 실패’로 2023시즌을 마무리한 KIA는 바쁜 겨울을 보내고 있다. 11월에는 5년 만에 해외에서 마무리캠프를 진행하면서 내년 시즌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캠프가 끝난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력 퍼즐을 맞추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외국인 선수 구성과 FA 계약이 이번 스토브리그의 핵심이다.

KIA는 지난 2년 외국인 농사에서 ‘홍작’을 기록했다. 소크라테스가 그라운드 안팎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안이 됐지만 순위 싸움의 핵심인 ‘외국인 원투펀치’가 시원치 않았다.

2년 연속 시즌 중반 외국인 투수를 모두 교체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올 시즌 메디나·앤더슨·파노니·산체스 4명이 합작한 승수는 16승에 불과했다.

## 산체스 작별

4명의 외국인 투수가 책임진 이닝도 283이닝에 그쳤다.

‘외국인 선수 구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KIA는 일단 산체스와의 작별을 고했다. 산체스는 강렬한 모습으로 KBO 데뷔전을 치르며 화제의 선수가 됐지만, 투구폼 논란 등으로 고전하면서 KIA의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2년 연속 대체 선수로 인연을 맺은 파노니를 놓는 고심하고 있다. 적응이 필요 없는, 장단점을 잘 아는 선수라는 점에서 파노니는 무난한 선택이지만 순위 싸움을 고려할 때 강렬함이 아쉽다.

## 파노니 고심

KIA는 좌우에 상관 없이 ‘원투펀치’에 맞는 강력한 투수를 우선 찾겠다는 계획이다.

소크라테스와의 ‘재계약’으로 가닥을 잡았다. KIA 외야 상황을 감안하면 내야의 한방 있는 타자가 아쉽지만 소크라테스가 꾸준히 제 몫을 해왔고, 선수단과의 팀워크에서도 최고의 점수를 받는다.

집토끼를 잡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KIA는 시즌이 끝나기 전 포수 김태균과 다년 계약을 하면서, 고민 많았던 ‘안방’ 자리에 안정

## 김선빈 진행 중

감을 더했다. 확실한 베테랑을 놓고 안방 구도를 그럴 수 있게 된 만큼 걱정 하나는 덜었다.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줬던 외야수 고종욱과도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계약을 마무리했다. 제2의 야구 인생을 열어준 팀, 어려울 때 효율적인 활약을 해준 선수라는 공감대 속에 양측은 빠르게 동행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 FA 권리를 행사한 내야수 김선빈과의 계약은 ‘진행형’이다. 계약 기간과 금액 모두 이전을 보이면서 걸음이 더디다.

타격에서의 매서움은 여전하지만 수비 범위·주

## 최형우 준비 중

루에서 고민을 남긴 만큼 KIA입장에서는 통 큰 베틀을 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내야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다이너마이트 타선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선수인 만큼 KIA는 차근차근 계약을 풀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올 시즌을 끝으로 FA 계약이 만료된 최형우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나이를 잊은 활약을 보여준 최형우는 후배들에게도 살아있는 교과서다. 최형우도 고향팀에서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는 만큼 차분하게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선빈에 집중하면서 외부 FA 시장에서 철수한 KIA는 내야·볼펜 강화를 위한 트레이드 문은 열어뒀다.

KIA가 알찬 스토브리그를 보내며 2024시즌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김선빈 FA 계약 최대 관심...계약 기간·금액 모두 입장 차이 최형우, 고향팀에서 의미 있는 마무리 준비...차분하게 진행

## ‘투수 3관왕’ NC 에릭 페디, MLB 복귀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1500만 달러 계약

올해 KBO리그를 평정했던 투수 3관왕 에릭 페디(30)가 미국프로야구(MLB) 복귀를 확정했다.

ESPN의 제프 파산 기사는 6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페디가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2년 1500만달러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2023시즌 100만달러를 받고 NC 다이노스에서 뛰었던 페디는 몸값을 크게 올려 빅리그로 급이환했다.

페디는 올 시즌 변형 구종 스위퍼를 앞세워 KBO리그에서 20승 6패, 평균자책점 2.00, 209탈삼진을 기록했다.

다승·평균자책점·탈삼진 부문 1위를 석권한 페디는 역대 4번째로 투수 트리플 크라운에 올랐고, KBO리그 역대 5번째이자 외국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한 시즌 20승과 200탈삼진을 동시 달성했다.

올해 KBO 시상식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최우수선수상(MVP)을 거머쥐었다.

페디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워싱턴 내셔널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통산 102경기(선발 88경기) 454.1이닝을 던져 21승 33패 평균자책점 5.41을 올렸다.

마이너리그 성적은 89경기(선발 71경기) 390.1이닝 23승 19패 평균자책점 3.69다.

원소속구단 NC는 다년계약을 제안하는 등 페디



에릭 페디

를 붙잡기 위해 공을 들였으나 에이스 이탈을 막지 못했다. /연합뉴스

## 범실...범실...범실...AI페퍼스, 0-3 흥국생명에게 완패

23개 범실에 6연패의 늪

8일 ‘14전 14패’ 정관장과 대결

AI페퍼스가 지난 5일 흥국생명과의 대결에서 1위의 저력을 당해내지 못하고 0-3(16-25 22-25 17-25)으로 패했다.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경기는 지난 1일 흥국생기에 이어 4일 만에 다시 펼쳐지는 흥국생명과의 ‘리턴매치’였다.

직전 경기에서 흥국생명을 상대로 5세트 듀스까지 끌고 가며 접전을 펼쳤던 만큼 이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컸지만, 결과는 완패였다. 이날 패배로 페퍼스는 6연패 늪에 빠졌다.

1세트에선 안정적이지 않은 플레이로 범실이 이어졌다.

7개의 범실을 남긴 페퍼스는 리시브 효율 23.81%를 기록하며 16-25로 1세트를 일방적으로 흥국생명에 내줬다.

흥국생명과 팽팽한 흐름을 보였던 2세트 7-7 동점 상황, 긴 팽리 끝에 페퍼스 이한비가 패턴을 바꿔 던진 공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기세를 이어 점수를 11-7, 4점차까지 벌리며 세트점수 획득을 기대했지만 흥국생명에 머지않아 따라잡혔다.

1세트에 이어 2세트 마저 22-25로 내어준 페퍼스는 3세트에서도 각각 7득점씩을 올린 흥국생명의 김연경과 엘레나의 화력에 17-25로 무너졌다.

이날 경기에서 흥국생명은 공격으로 41득점, 블



5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과 페퍼저축은행의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 야스민이 수비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로킹 8득점을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페퍼스는 이날 23개의 범실을 내며 제 기량을 펼치지 못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앞서 흥국생명 김연경에게 2라운드 MVP가 시상됐다.

김연경은 이번 MVP 선정에 대해 “팀이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 받게 됐다”며 “팀 선수들에게 한 톰

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페퍼스는 오는 8일 오후 7시 페퍼스타디움에서 ‘천적’ 정관장을 만나 3라운드 두 번째 경기를 펼친다.

‘14전 14패’의 상대를 만나게 된 페퍼스가 정관장 첫 승을 거두고 6연패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